

한전, 중형 풍력발전기 개발...그린뉴딜 '첫발'



영광에서 실증 성공한 중형 풍력발전기. (한전 제공)

올해 실증 성공...최소 2000기 설치로 외주 대비 8천억 수입 기대
전남 풍력발전량 35만2678MWh 전국 4번째...10년 새 376배 급증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국판 그린 뉴딜' (경제 부흥) 핵심사업으로 꼽은 가운데 한국전력이 약한 바람에도 운영할 수 있는 중형 풍력발전기 실증을 영광에서 성공했다. 이는 국내에서 최소 2000기 설치할 있는 발전기로, 외주 대비 약 8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한전 측은 내다봤다.

20일 한전은 저풍속에서도 안정적으로 200kW급 발전이 가능한 중형풍력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사용하는 중소형급 풍력발전기는 풍속이 12% 이상 돼야 정격 출력을 낼 수 있어 바람이 강하지 않은 국내환경에선 이용률이 저조했다.

한전이 개발한 200kW급 중형풍력발전기는 날개 길이를 늘려서 바람의 힘을 받는 면적을 넓혀 10%의 낮은 풍속에서도 정격 출력을 낼 수 있다.

또 날개의 회전속도를 높이는 기어박스 없이 발전하는 직접 구동형을 채택해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했다.

풍력발전기는 발전기에 기어박스가 연결된 기어형과 기어박스가 없는 직접 구동형

으로 나뉜다. 기어형은 풍력발전기 내부의 발전기 크기가 작은 장점이 있지만, 고장 빈도가 높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한전이 개발하고 DMS(주)가 제작한 이번 중형풍력발전기는 지난해 1월 영광군에 설치된 뒤 시운전에 착수해 이달 성공적으로 실증을 마쳤다.

한전은 국내에서 풍향 조건과 입지를 고려했을 때 최소 2000기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200kW급 2000기를 국산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설치된 고가의 외산 중형풍력발전기 대비 약 8000억원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 관계자는 "북미와 유럽 지역 중형풍력발전기 시장규모는 올해 280억달러(33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전이 국내기업에 기술이전을 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섬 지역이 많아 풍력발전기 수요가 많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풍력 발전규모와 신규 보급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남 풍력 발전량은 35만2678MWh로, 전국 발전량(246만4879MWh)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 강원,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최근 7년 동안 전남지역 풍력 발전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을 매해 웃돌았다. 전년과 비교한 전남 풍력 발전 증가율은 2015년 36.6%, 2016년 47.6%, 2017년 29.7%, 2018년 15.0%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 풍력 발전량이 0.2% 감소했음에도 전남 발전량은 무려 349.3% 증가했다.

2018년 전남 풍력 발전량은 10년 전인 2008년(939MWh)과 비교해 376배(3만7458%) 가량 급증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에는 그린에너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영광(34.5MW)과 서남해 실증단지(60MW), 탐라(30MW) 등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규모를 2030년까지 12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신안(8.2GW)과 전북 서남권(2.4GW) 등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98.20 (-2.99)	↓ 금리(국고채 3년) 0.801 (-0.011)
↓ 코스닥 781.96 (-1.26)	↓ 환율(USD) 1203.20 (-1.90)

전남 양파 생산량 17년 만에 최저

광주 2591t·전남 45만2737t
가격 폭락에 마늘 생산량도 ↓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 올해 양파 생산량이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양파값이 26% 넘게 급락하는 바람에 재배면적을 줄였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평년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양파 생산량은 광주 2591t·전남 45만2737t 등 45만5328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전남은 22.2% (12만9220t) 줄고 광주는 11.6% (270t) 늘었다.

전남지역은 양파 최대 생산지로, 전체 생산량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전국 생산량은 116만8227t으로 지난해보다 42만6223t(26.7%) 감소했다. 2017년(114만4000t) 이후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전남 생산량은 지난 2003년(40만8110t)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다. 최근 2년 연속 양파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재배 면적을 줄인 영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한 양파 1kg 연평균 도매 가격은 2017년

1234원, 2018년 823원, 2019년 606원으로 하락을 거듭해왔다.

올해 전남 생산면적은 지난해(8467ha) 보다 무려 32.2%(-2724ha)나 줄었다.

마늘 생산량은 전남 7만437t·광주 456t으로, 전년보다 각각 4.4%, 23.6% 줄었다.

지난해 마늘 가격은 4255원으로, 전년(5551원) 보다 23.3% 떨어진 영향으로 재배면적을 줄였다.

전남과 광주 마늘 재배면적은 각각 8.2%, 21.7% 줄었다. 전남 생산량은 경남(9만7511t), 경북(8만3020t)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전국 생산량도 총 재배면적이 8.4% 줄면서 지난해보다 2만4239t(6.3%) 감소한 36만3432t으로 조사됐다.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를 포함한 보리 생산량도 줄었다.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보리는 전년보다 29.3%(-2만6227t) 줄어든 6만3391t 생산됐다.

광주는 지난해(2461t) 보다 1231t 감소한 1230t을 재배하며 생산량이 반토막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리는 지난 2-3년간 평상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양이 생산돼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해 재배 면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잇단 중국산 마늘 수입에 가격 안정세 저해 우려

전남농협·마늘전남협의회

전남지역 마늘 생산자 협의체가 "중국산 마늘 수입에 따라 마늘 가격 안정세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와 마늘전남협의회(협의회장 양수원·농동농협 조합장)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농협 등이 추진한 시장격리와 2차 생장 재해, 별마늘 예산지원 등으로 최근 마늘 가격이 지난 달부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늘 산지가격은 1kg당 3000원 중·후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마늘수급안정 대책을 세우고 4만1000t을 시장격리했다. 유형별로 보면 면적 조절 1만5000t,

정부 수매 1만1000t, 농협 추가 수매 1만5000t 등이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로 124ha, 도 자체 사업비로 18.3ha를 시장격리했다. 농협에 따르면 전남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21% 감소했다.

하지만 협의회 측은 수입업자를 통해 중국산 마늘이 잇따라 수입됨에 따라 마늘 수급안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중국 마늘의 산지가격이 크게 떨어져 7월 중국산 마늘 수입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마늘 생산량이 전년보다는 10% 가량 적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4만5000t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해양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힘 보탠다

포스터·라벨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내년 4월 완도군에서 열리는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난 17일 완도군청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오명호 보해양조 전남영업본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박람회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해양조는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알리는 후면라벨을 제작해 인쇄주에 부착한 뒤 광주·전남지역에 유통시킬 예정이다.

또 박람회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보해양조 전국 지점망을 통해 영업활동시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보해양조는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지를 기원하는 홍보문안을 인쇄주에 부착하는 등 지역기업으로서 지역 주요 행



오명호(왼쪽) 보해양조 전남영업본부장과 신우철 완도군수가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보해 제공)

사를 알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명호 전남영업본부장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보해양조의 오늘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덕분이었

다"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

59곳 대출이자 지원 등 혜택

전남도가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59개사를 올해 '전남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며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제조기업 중 재무구조 건전성과 성장성, 기술력, 일자리 창출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선정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상향 및 대출 이자 지원 우대를 비롯 판로·수출 분야 사업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527개 중소기업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지역 강소기업으로 육성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